

JAPAN

일본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JAPAN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주간 심층이슈

『일본의 문화콘텐츠 보존&활용 현황과 정책』

◎ 작성취지

- 문화 콘텐츠와 전통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의 보존과 활용에 힘을 기울여왔음. 이러한 문화적 인프라의 정비야말로 총체적인 소프트파워를 키우는 기초체력에 해당됨.
- 일본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존의 문화콘텐츠에 대해 후대への 문화적 계승은 물론 콘텐츠 산업의 인프라로서의 활용을 위해 꾸준하게 디지털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음.
- 일본의 방송, 영화 및 문화콘텐츠의 보존&활용에 대한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문화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현황을 짚어보고 참고자료로 삼고자 함.
※ 출처 : 문화청, 총무성 홈페이지, NHK아카이브스/방송프로그램센터, 동경근대미술관 필름센터 등의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

◎ 작성순서

1. 방송 프로그램 아카이브 현황
2. 영화 아카이브 현황
3.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현황
4. 일본정부의 디지털 아카이브 정책

1. 방송프로그램 아카이브 현황

■ 지상파 민간방송의 방송 프로그램 센터

○ 방송계의 공동사업으로서 설립

- 공익재단법인 방송 프로그램 센터(<http://www.bpcj.or.jp/sp/program/>)는 일본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방송계 전체의 공동사업으로서 1968년 3월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임.

○ 방송 프로그램 센터의 사업

- 방송 프로그램 센터의 중요한 사업으로서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수집·보존하여 일반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개(관내에서만 시청)하는 방송 라이브러리 사업임.

이외에도 방송의 역사와 역할, 일생생활과의 관계를 소개하는 전시나 프로그램의 상영회, 방송에 관한 세미나, 포럼을 개최하는 등 방송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방송 프로그램 센터는 1968년 발족한 후, 우수한 TV교육·교양 프로그램의 조달·공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조달·공급사업의 역할을 마치고 2008년 말에 폐지함.

○ 방송법의 규정

- 방송 프로그램 센터의 사업 중, 방송법에 근거한 것은 방송 라이브러리 사업임. 방송법에는 방송 라이브러리의 사업자를 <방송 프로그램 센터>라 하고, 대략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전국에 하나로 한정하여 총무대신이 지정.

2. 업무는

(1) 방송 프로그램의 수집·보존, 일반 대중의 시청

(2)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류·정리·보관 및 제공

(3)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시기 적절히, 혹은 의뢰에 응하여 제공하는 것

(4) 부대 업무

※방송 프로그램 수집 기준<2012.5.31. 개정>

○ 보관 규모

- 지금까지는 TV 프로그램 약 18,000편, 라디오 프로그램 약 3,800편을 보존하여, 이 중 약 17,000편을 공개하고 있음. 또한, ACC CM 페스티벌 입상작품의 CM이나 극장용 뉴스영상 등을 공개하고 있어 모두 합쳐 약 25,000편을 공개하고 있음.

※ACC(All Japan Radio & Television Commercial Confederation)는 전일본시엠방송연맹이라 불리며 CM관련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CM문화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임.

- 사업예산은 연간 약 4억 엔으로 모든 민간 방송과 NHK 및 요코하마시로부터 각출한 기금의 운용이익, NHK, 민간 방송국으로부터 기부금 또는 공익단체의 보조금, 찬조원의 기부금으로 조달함.

○ 시설

- 방송프로그램 센터내 방송라이브러리는 전시시설과 시청시설로 나뉨. 시청시설에는 종합안내, PC코너, 시청부스, 연구자용 부스로 구성됨.
- 전시시설은 웰컴 TV, 플레이백 시어터, 라이브TV월, 뉴스 스튜디오, 방송 과정, 정보살롱, 퓨처TV, 방송크로니콜월, 영상홀, 이벤트홀 등으로 구성됨.

○ 검색방법

- 방송라이브러리는 인터넷에서도 검색이 가능한데, 방송 프로그램 검색 단위는 타이틀, 키워드, 방송국/제작사, 방송일/제작년도, 수상경력 등을 통해 검색이 가능함.

○ 찬조원제도

- 방송 프로그램 센터에서는 센터의 목적에 찬성하는 법인, 개인으로부터 자금 협력을 구하는 찬조원제도를 마련함. 찬조원이 방송 라이브러리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특정한 경우에는 특정 공익증진 법인에 대한 기부로서 손액산입 및 소득공제등, 세제상 우선조치가 인정됨.
- 찬조원의 이름은 방송 라이브러리 내에 게시함. 또한 찬조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이 있음.
 - (1) 방송 라이브러리가 주최하는 이벤트 초대
 - (2) 시청 부스의 예약 · 우선 이용
 - (3) 방송 라이브러리 공개 프로그램 목록의 송부

(4) 기관지 <방송 프로그램 센터 레포트>의 송부

- 찬조금 (연간 액)은 법인 1건 10만 엔, 개인: 1건 1만 엔임

※법인, 개인 모두 10건 이상 신청할 경우, 특별찬조원으로 함.



<방송프로그램센터 방송라이브러리 내부>

■ NHK 아카이브스

○ 일본 최대의 방송프로그램 아카이브

- NHK 아카이브스는 2003년 2월에 NHK TV방송개시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복합시설 ‘SKIP시티’ 내에 개설된 시설임.
- NHK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음원 등에 대해 그 시대를 조명한 각종 기록을 후대까지 널리 전달한다는 목적으로 개설됨.
- NHK는 TV/라디오 프로그램 등의 방대한 양의 영상/음성소재를 소장하고 있음. 사이타마현과 공동으로 ‘프로그램 공개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음.
- 아카이브스에는 약 60만개 이상의 NHK제작 다큐멘터리, 드라마, 노래 프로그램 등의 영상/음성소재부터 권리관계를 처리한 약 6,000개, 및 사이타마현이 소장한 영상소재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음.
- 또한 인형극의 인형, 각종 방송용 비디오 테이프등 방송관련 자료도 전시되고 있음.
- 전국의 NHK각국과 광섬유 전용선에 의한 IP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

카이브스의 라이브러리를 PC단말로 검색/이용이 가능해 프로그램 제작에도 활용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시스템의 확립으로 소재테이프를 방송국까지 배달할 필요가 없어짐.
- NHK의 영상라이브러리는 전국 각지의 방송국등 52개소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음.
- 2007년 2월부터 NHK아카이브스에서 보존되어 있는 TV프로그램의 일부를 게재한 리스트가 인터넷에서 공개됨. 이로써 프로그램공개 라이브러리에서 공개된 것 이외의 TV프로그램의 보존상황도 알 수 있게 됨(<http://archives.nhk.or.jp/chronicle>).
- NHK는 2000년 4월부터 NHK아카이브스에 보존되어 있는 영상물을 시청자 리퀘스트 등을 참고로 ‘NHK아카이브스’ 라는 프로그램에서에 방송하고 있음.



<사이타마현에 있는 NHK아카이브스>

○ 검색방법

- NHK아카이브스는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함. 검색단위는 크게 방송년도, 장르, 지역, 특별테마, 랭킹, 이미지로 찾아볼 수 있음.
- 방송년도는 1950년도부터 최근까지 검색가능하며, 장르는 뉴스, 음

- 악, 드라마, 기행등 15로 나누어져 있음.
- 특별테마의 경우, 유명한 콜렉션, 장수프로그램, TV에서 활약한 외국인, 친숙한 테마곡, 추억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테마로 분류되어 검색이 가능함.
 - 랭킹은 15개 장르별 열람수를 기준으로 랭킹으로 검색이 가능함.
 - 이미지로도 검색이 가능함. 가령 프로그램 가운데 등장한 영상을 텍스트로 표현해서 검색할 수도 있음.

2. 영화 아카이브 현황

■ 도쿄 국립 근대 미술관 필름센터

○ 설립취지

- 필름센터(<http://nfgd.momat.go.jp/>)는 도쿄 국립 근대 미술관의 영화 부문으로서, 영화의 박물관·자료관의 기능, 영화문화·예술의 거점기능 및 영화로 인한 국제교류의 거점기능을 담당하는 일본 유일의 국립영화 기관으로서 1970년에 스타트
- 4만 타이틀 이상의 영화필름 외에 약 6만점에 이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콜렉션 ‘미소노 콜렉션’을 중심으로 한 스틸사진/포스터/각본/서적등 다수의 영화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 소장작품의 전국 순회 상영 및 ‘어린이 영화관’이라 불리는 영화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제반 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국제 필름아카이브 연명 정회원으로 세계 각국의 영화보존기관과 협력하면서 국제적인 영화 심포지엄 및 강연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영화 검색은 영화제목, 캐스트 및 스태프 검색, 제작연대로 검색이 가능함.

○ 연혁

- 1952년 6월 국립 근대 미술관 설치에 따라 <영화부문> 설치
- 1969년 4월 도쿄 국립 근대 미술관의 조직으로서 <필름센터> 설치
- 2001년 4월 도쿄 국립 근대 미술관이 독립 행정법인 국립 미술관의

한 기관이 됨으로써 <필름센터>도 그 안에 소속됨.

○ 주요사업 내용

- 수집

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작품 등 국내외의 영화필름을 수집. 최근 제작회사의 원판 등이 대량으로 기부되고 있음. 영화 관계 자료(도서, 시나리오 등)에 대해서는 기증된 것을 중심으로 망라하여 수집함.

- 보존·수복

사가미하라 분관에서는 24시간 공기조절을 함으로써 필름을 관리·보존함. 또한, 복제에 따른 보존용 필름의 작성, 필름의 세정, 디지털 기술 등에 따른 필름의 복원 등을 실시함.

- 상영·전시

예술적,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작품과 시사적·문화적으로 귀중한 작품 등의 특집 상영을 실시함. 소장하고 있는 영화 관계 자료에 따른 소장 작품전을 실시함.

○ 도쿄 교바시 본관

- 1970년 5월에 필름 라이브러리를 독립시킨 필름센터로 개관함. 1995년에 건물을 리뉴얼해 대홀(2층 좌석수 310석)과 소홀(지하 1층 좌석수 151)에서 예술적 영화사적, 시사적 문화사적으로 귀중한 작품 등의 상영전시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전시실(7층)에서는 영화자료의 전시, 도서실(4층)에서는 영화관련 문헌을 공개하고 있음.

○ 사가미하라 분관

- 분관은 1986년 1월에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중앙구에 개설된 필름보존관. 원칙적으로는 비공개 시설이지만, 상영시설을 활용해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상영회 등이 실시하고 있음.

○ 필름의 수집·소장 상황 (2012년 3월 말 현재)

■ 표 1 ■ 영화 필름의 수집편수(2003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구입	281	958	476	406	285	375	1194	413	291
기증	1663	6984	1532	1611	2834	7671	1648	852	1479
합계	1944	7942	2008	2017	3119	8046	2842	1265	1770

[단위: 편]

■ 표 2 ■ 영화 필름의 소장 작품편수(2012년 3월 말 현재)

종별	일본영화	외국영화	합계
극영화	10587	4438	15025
문화·기록영화	25426	2948	28374
애니메이션 영화	2129	313	2442
뉴스 영화	13418	187	13605
TV용 영화	5604	467	6071
합계	57164	8353	65517

[단위: 편]



<필름센터 내부>

3.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현황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현황

○ 주요 박물관/미술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현황

- 디지털아카이브의 구축 및 운영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은 정부 산하기관임.
- 동경국립박물관(<http://www.tnm.jp/>)에서는 수장품(收藏品) 관리업무에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사진촬영 및 디지털전환 및 시스템 입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 플로를 구축
- 독립행정법인 국립문화재기구에서는 동경국립박물관 외 총 4관의 국립박물관 수장품을 감상할 수 있는 ‘e-국보’(<http://www.emuseum.jp>)를 공개하고 있음.
-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에서는 동경국립근대미술관을 비롯한 4개의 국립미술관의 수장품을 리플렛을 넘기듯이 유저 인터페이스로 개선해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유보관’(遊歩館)(<http://rensou.info/yuuhokan/index.html>)을 공개하고 있음. 또한 ‘소장작품 총합목록 검색시스템’에서는 4개 관의 소장목록을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음.
-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디지털아카이브의 구축, 정보자원 관련 정보의 충실, 디지털아카이브 포탈기능의 충실을 목표로 내걸고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귀중한 자료를 전자화해서 공개하고 있는 ‘근대디지털 라이브러리’, ‘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화자료’ 및 국내에 다수 존재하는 디지털아카이브 등을 일괄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국립국회도서관 서치’(<http://iss.ndl.go.jp/>)등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국립공문서관에서는 2005년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언제나, 어디서든,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공문서관 소장의 역사공문서 등의 목록정보의 검색, 디지털 화상의 열람이 가능한 ‘국립공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http://www.digital.archives.go.jp/>)를 공개하고 있으며 2010년 3월 1일부터는 보다 알기 쉽고 사용하기 쉽게 디지털 아

카이브를 리뉴얼해서 운용중임.

표 3 | 국립국회도서관 공개 디지털 자료 현황

구분	디지털화된 자료	인터넷 공개자료
고전서적자료	약 7만점	약 7만점
도서	약 89만점	약 34만점
잡지	약 105만점	의학중앙잡지, 영문관보, 치과학보, 현대의 도서관, 기상, 퍼스컴 비평, 법령뉴스 등을 공개
역사적 음원	1900년대 초반부터 1950년경까지의 일본에서 발매된 음반에 수록된 약 5만점의 음원의 디지털화 추진	순차적으로 공개
관보		1883년부터 1952년까지의 관보, 1946년부터 1952년까지의 영문관보
박사논문	14만점(1991년~2000년)	14,000점
헌정자료	다수	약 140건
일본점령관련 자료	다수	약 17,000점

○ 지방 소재 박물관/미술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현황

- 나가노현 마치도쇼테라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례

기관명	마치도쇼테라소
디지털아카이브명	오부세쇼소
URL	http://obuseshoso.info/
공개 연월	2007년 12월
자료 종류	지역미술관 박물관 소장품
자료 건수	151건(오부세 뮤지엄), 50건(다카이 고잔 기념관)
개요	오부세 마을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지원을 실시, 마을 주민과 함께 오부세 마을 아카이브를 만들. 규모는 작지만, 공동연구 및 실증실험을 활용해 다양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 유지하고 있는 사례

- 나가노현 신슈 데지쿠라 사례

기관명	나가노현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사업
디지털아카이브명	신슈데지쿠라
URL	http://digikura.pref.nagano.lg.jp/
공개 연월	2010년 4월 1일
자료 종류	현립 나가노 도서관·현립 역사관·나가노현 시나노 미술관 소장물, 현민 및 시정촌 제공 영상등
자료 건수	2,415건(2011년 12월말 시점)
액세스수	PV : 약 만건(월 평균)
개요	현 및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협의/검토를 거쳐 지역 아이덴티티의 재인식과 지역건설로 연결시켜 나갈 목적으로 현의 소장물의 디지털화 등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

- 도쿄도 네리마구 구립미술관 사례

기관명	네리마구 구립미술관
디지털아카이브명	신소장품 데이터 베이스
URL	http://www.nerima-art-museum.jp
공개 연월	2005년 3월
자료 종류	지역의 근현대 작가를 중심으로 한 일본화, 판화, 조각/공예등
자료 건수	약 1,700건(2012년 1월 현재)
액세스수	약 37,000건~71,000건/월(2011년)
개요	소장품을 인터넷상에서 공개하는 방식으로는 비교적 일찍(2005년)부터 실시한 선진적인 사례임.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점 및 널리 정보발신함으로써 미술관의 발전 및 지역 활성화에도 공헌하고 있는 사례.

- 효고현 고베시 고베대학 사례

기관명	고베대학
디지털아카이브명	진자이(震災) 문고
URL	http://www.lib.kobe-u.ac.jp/eqb/
공개 연월	1996년 7월
자료 종류	도서자료, 잡지자료, 신문/홍보잡지류, 팜프렛류, 한 장짜리 자료, 사진 자료등
자료 건수	4,906건(2012년 1월 현재)
액세스수	3,035건/월평균(2011년4월~12월)
개요	소장품을 재해복구 및 지진연구/방재대책 등에 활용하려고 한신/아와지 대지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지역을 비롯 전국의 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목적으로 연결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 콘텐츠의 수집부터 시민과 함께 아카이브를 만들어낸 사례.

- 야마구치현 하기시 하기시립 하기도서관 사례

기관명	하기시립 하기도서관
디지털아카이브명	하기도서관 귀중자료 아카이브스
URL	http://hagilib.city.hagi.lg.jp/hagilib-archive/archiveindex.html
공개 연월	2011년 3월
자료 종류	하기도서관 소장의 에도, 메이지기를 중심으로 귀중서적 및 자료목록
자료 건수	101건(2011년 6월 현재)
개요	소장품을 새로운 하기도서관의 개관을 계기로 소장하고 있는 유신사 관련을 중심으로 귀중자료를 디지털화, 데이터화함으로써 정보발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스타트. 전자도서관과 공존하는 미래의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의 하나로 주목되는 곳임.

-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문서관 사례

기관명	후지사와시 문서관
디지털아카이브명	후지사와시 문서관 후지사와 디지털 아카이브스
URL	http://digital.city.fujisawa.kanagawa.jp/
공개 연월	2010년 4월
자료 종류	사진, 그림엽서, 고지도, 전자자료 등 후지사와시의 역사자료
자료 건수	1,000점 정도
엑세스수	월간 약 2,500페이지
개요	문서관과 공문서 관리등 문서관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계몽활동을 목적으로 알기쉽고 흥미로움을 콘셉으로 사이트를 구성. 지속적인 콘텐츠 갱신을 실시해 몇 번이고 액세스하는 것을 염두에 둔 사이트 구축 등이 참고가 되는 사례

■ 사이타마현의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및 활용사례

○ 사이노구니 디지털 아카이브

- 사이타마현은 영화, TV프로그램, 문화재 사진, 기념사진 등의 귀중한 자료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보존하고 있음.
- 영상은 사이타마현이 기획제작한 영화 및 TV프로그램, 사이타마현 관련 영상, 전국각지의 과학기술 및 전통문화를 다룬 영상을 소장
- 문화유산은 사이타마현이 소유하고 있는 회화, 조각, 공예품, 고문서, 출토품 등의 귀중한 문화재를 5,000장 이상 소장
- 메이지시대부터 현재까지 사이타마현 지역의 기록사진. 신문보도사진, 도서관 보관사진, 시정촌 제공사진을 소장
- 콘텐츠의 보존과 관련 귀중한 문화자산이 열화되지 않도록 온도가 관리되는 보관창고에서 보존. 공개가능한 콘텐츠는 모두 서버에 저장되어 있음.

- 동영상콘텐츠는 디지털 베타컴/테이프로 보존. 정지화면콘텐츠는 3 종류의 파일(약 20Mpix의 TIFF, 약 5Mpix의 TIFF, 약 5Mpix의 JPEG)을 CD-ROM으로 보존
- 인터넷 전송은 1952년부터 1994년에 걸쳐 제작된 뉴스영화. 또한 디지털아카이브화된 영상, 문화재, 사진을 모두 인터넷에서 검색가능함.
- 콘텐츠의 활용과 관련 방송프로그램, 출판물 등을 제작하기 위해 영상소재를 찾는 방송사업자, 출판사, 제작사 또는 박물관, 미술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이용되는 영상을 찾는 경우, 사이노구니 비주얼 플라자가 창구가 되어 영상소재 이용을 서포트함.
- 수업에서 이용할 경우에도 DVD를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도 실시

4. 일본정부의 디지털 아카이브 관련 정책

■ 문화청의 문화유산 온라인

○ 2003년부터 총무성과 함께 추진

- 문화유산온라인이란 미술관, 박물관등에 소장된 문화유산의 데이터를 등록해 검색·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말함.
- 문화유산온라인은 일본국내의 문화유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전세계 발신을 목표로 문화청과 국립정보학연구소가 공동 운영하고 있음.
- 2008년 3월 정식 오픈한 이래 이용자를 위한 상세한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 및 미술관/박물관, 관련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음.
- 2011년 11월 현재 92,466건의 문화유산정보가 등록되어 있음. 전국에서 927관의 미술관, 박물관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4관이 문화유산정보를 게재하고 있음.
- 문화유산온라인 구상은 2003년 4월 문화청과 총무성이 발표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문화청에는 문화유산정보화추진전략회의가 설치됨.

- 2004년 4월에는 동회의가 ‘문화유산온라인 공개를 위해-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과 당면 추진해야하는 시책-’를 공표하고 동시에 ‘문화유산 온라인’을 일반에 공개했음.
-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자료소스가 디지털화됨으로써 박물관, 도서관, 문서관의 구분이 모호해짐. 따라서 문화유산온라인을 통해 MUSEUM, LIBRARY, ARCHIVES가 연대하고 전자정보로써 공유,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련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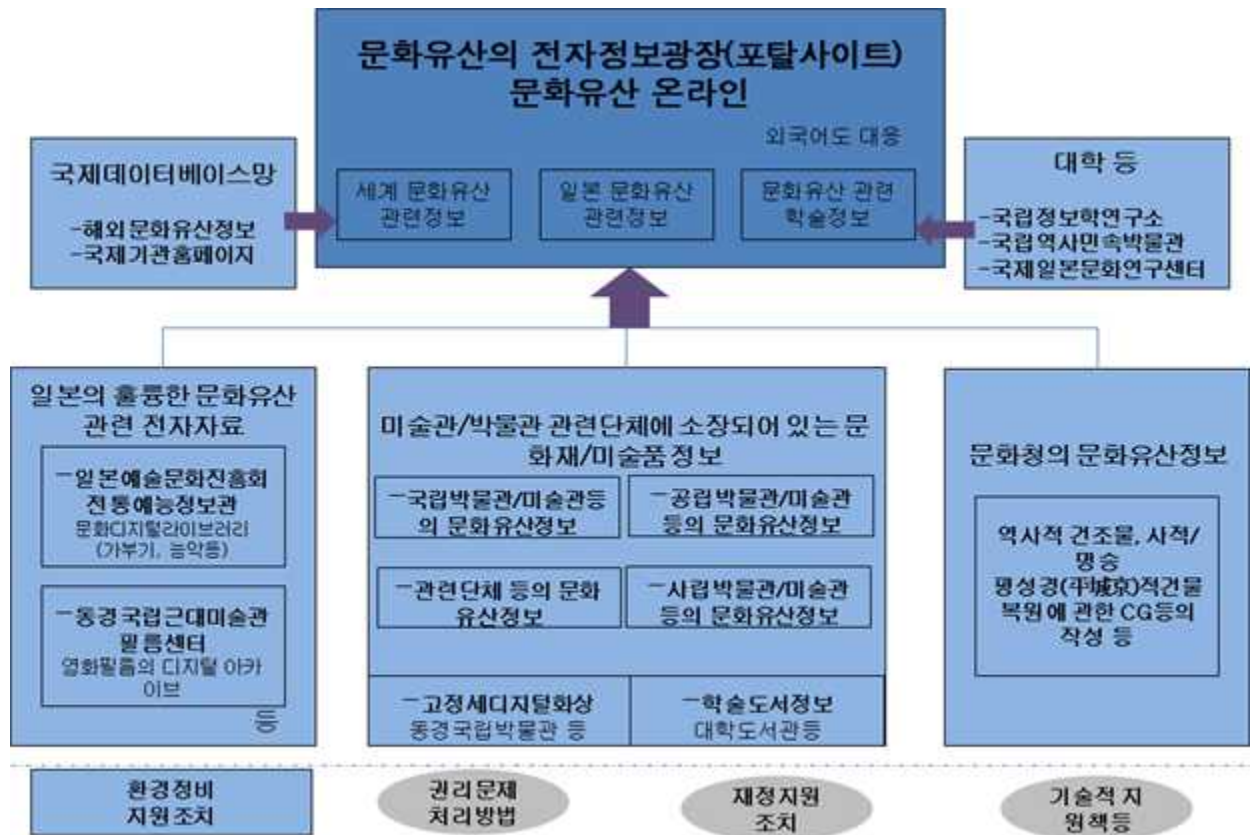
■ 총무성의 디지털아카이브 정책

○ 지(知)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회

- 총무성은 2011년 2월부터 ‘지의 디지털아카이브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아카이브 추진을 위한 대책 방향성에 대해 검토를 해옴. 2012년 3월 ‘지의 디지털아카이브의 실현을 위한 제언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연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네 가지 방향성은 지적자산의 디지털화와 공개, 인적 기반의 구축, 시스템 기반의 구축, 콘텐츠 유통기반의 구축임.
- 지적자산의 디지털화와 공개와 관련 중소규모의 박물관, 도서관, 문서관 등이 소장하는 자료의 디지털화, 인터넷 상의 공개 추진
- ‘디지털 아카이브 추진/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홍보/보급 및 기술/이용환경 변화에 입각한 개선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연대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조치의 확충을 제언.
- 인적 기반의 구축부문에서는 디지털 아카이브 기술/지식/노하우 등을 수집/축적/공유하는 ‘디지털아카이브지원네트워크’(DAN)의 설립
- 디지털 아카이브의 추진에 이해가 있는 리더의 확보 및 구축/운영 해나가기 위한 전문적 인재의 필요성에의 이해
- 디지털아카이브의 유기적 연대를 추진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스페셜 리스트’의 육성을 제언
- 시스템기반의 구축에서는 데이터 형식의 표준화/내재해성의 관점에

- 서 데이터 축적기반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클라우드를 추진
- 문화유산온라인의 이용촉진/기능확충(다언어 대응등)
- 동일본대지진의 기억을 전송하고 미래의 재해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동일본대지진 아카이브’의 구축
- 디지털 콘텐츠 장기보존기술의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노하우의 공유를 추진을 제언
- 콘텐츠 유통기반의 구축과 관련 조직/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의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자산 ID의 도입
- 메타데이터정보기반(MetaBridge)의 이용보급/기능확충을 추진하고 메타데이터의 유통 촉진을 제언

┃그림 1┃ 문화유산 온라인구상 이미지



참고) 디지털 아카이브란

■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하여

○ 디지털 아카이브란

- 박물관, 미술관, 공문서관 및 도서관의 소장품, 유형·무형의 문화 자원 등을 디지털화하여 보존하는 것을 일컫음. 디지털화함으로써 문화자원 등의 복구·공개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이용도 용이해짐.
- 자료를 세밀하고 정교하게 전자화함으로 인해 원본 자료에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장래적으로도 자료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짐.

○ 디지털 아카이브의 의의

- 영상유산의 보존
과거의 정경, 풍속을 기록한 영상은 그 나라와 지역에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발상으로부터, 영상유산을 손상, 손실의 위기에서 보존함.
- 문화유산의 기록
손상이 진행되는 역사적 문화재, 또는 전통기술 등의 무형 문화재를 디지털 영상으로 기록하여 후세에 계승함.
- 지역영상 라이브러리
지역의 현재 모습을 체계적으로 영상에 기록하여 향토학자들이 활용하고 차세대가 계승하는 것을 꾀하는 영상 라이브러리 구축을 목표.
- 지역 산업 아카이브
지역의 산업 활동의 정보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기업이 공동 이용할 수 있게 상품 및 디자인 등을 디지털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만듦.

○ 디지털 아카이브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 자료의 파손 및 질 저하 방지

디지털화함으로써, 파손의 우려 없이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원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었던 복사도, 컴퓨터를 사용하면 프린트 인쇄를 통해 제공 가능해짐.

- 새로운 표현의 실현

몇 개의 자료의 영상을 부분적으로 잘라내어, 재합성하는 것이라든지, 다양한 해설·음성 등을 덧붙이는 것에 의해 원래의 자료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짐.

- 시간적, 지리적인 제약을 초월한 자료 제공

컴퓨터를 사용하여, 어디에서든지 귀중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짐. 또한, 동시에 많은 이용자에게 자료 제공이 가능해져, 각 초·중·고등학교, 지자체의 생애학습에 활용이 가능해짐.

- 다양한 각도에서 자료 검색

데이터베이스화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자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볼 수 있게 됨.

○ 그 외의 특징

- 디지털 아카이브의 특징으로서, 민주주의 및 정보공개에의 기본이 되기 위해, 국가가 소매를 걷고 나서는 경우가 많음. 미국, 유럽 등은 자국에 불리한 경우일지라도, 그 사상에 관한 것을 보전한다든지, 데이터의 재검증 등을 행하여, 후세에 정보는 전달할 수 있는 스탠스를 확보함.

○ 일본에서의 역사

- 1990년대 중반, 도쿄대학 명예교수·츠키오 요시오가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말을 일본에 처음으로 제시함.
- 2003년 7월에 결정된 <e-Japan 전략 II>에서는 콘텐츠 사업등의 국제 경쟁력의 향상 및 해외에서의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출판 등의 콘텐츠,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의 소장품, Web정보, 특색있는 문화 등의 디지털 아카이브화와 일본내외 정보의 발신의 추진을 내세움.

- 같은 해 8월 결정된 <e-Japan 중점 계획-2003>과 2004년 2월에 결정된 <e-Japan전략II 가속화 패키지>에서도 교육용 콘텐츠의 충실·보급 및 국가 등이 보유한 콘텐츠의 보존과 이용기회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계속해서 각 종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브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함